



Delivered Electronically

수신: 케이티앤지 이사회: 손관수 / 손동환 / 김명철 / 고윤성 / 이지희 / 곽상욱 / 방경만

2024년 7월 11일

KT&G 이사회 여러분,

지난 2021년, 백복인 전 사장은 실적과 주가를 폭락시키고도 사상 최대 연봉을 받아 업계 연봉킹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1 개나 되는 CEO 평가기준에는 ‘신성장동력사업가치창출’, ‘그룹인프라혁신’, ‘ESG 경영고도화’, ‘투명윤리경영기반강화’ 등 공허한 표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사회가 만든 이런 주먹구구 시스템 덕을 본 경영진은, 허위출장서를 통한 부부동반관광 등으로 사외이사들에 보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경만 신임 사장도 백복인 전 사장처럼, 눈물 흘리는 주주들 뒤에서 회사 현금을 챙겨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현 이사회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있는회사’ 캠페인을 시작한 2022년이래로, 저희는 진정한 ESG 를 위해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이해 일치”가 시급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올 3 월에는 여러분들께 임원 연봉의 2/3 이상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KT&G 이사회는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주주인 저희가 CEO 보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KT&G CEO 보상 프로그램 (안)

- 1. 기본급 1 억원 (기본급, 스톡그랜트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 및 수당 일절 없음)
- 2. 지급시기 방경만 사장 현 임기 종료일 (2027년 3월)

3. 스톡그랜트
지급주식수

주가 ¹	누적 지급 주식 수	시가총액 증가분 (A) ²	지급 주식가치 (B)	B/A
112,440 원	-	2.1 조원	-	
140,550 원	21,000	5.3 조원	30 억원	0.1%
187,400 원	53,000	10.6 조원	100 억원	0.1%
281,000 원	53,000	21 조원	150 억원	0.1%

- 1) 2027년 3월 평균가 (3월 1일 ~ 지급시기 직전일)
- 2) 2024년 3월 28일 기준 주가 적용, 자기주식 제외

4. 베스팅 조건 i) 매년 주가가 최소 20% 상승하고 ii) 연결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성장하는 경우에 한해, 전체 지급주식수의 1/3 씩 균등 지급 (예를 들어, 매출, 영업이익은 성장하나 세번째 해에만 주가가 올라 187,400 원이 되는 경우에는 53,000 주의 1/3 만 지급)

5. 처분 제한 주식 지급 후 3년간

KT&G 는 특수 상황입니다. 동종업계 수준이면 최소 15 만원은 되어 할 주가가 아직도 8 만원대입니다. 무려 16 년전 주가입니다.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인없는기업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이때, KT&G 이사회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 일치는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총이 수십조가 늘어 국민연금과 전국민들의 자산이 증식된다면 수백억을 사장에게 지급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성과도 없는데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장과 주머니 받거나 거래하며, 투명성을 막고, 경영진의 방패막이 노릇 하라고 우리 주주들이 여러분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새로운 보상안은 모든 주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총소집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7월 내로 답변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상현 드림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consisting of several fluid, connected strokes, positioned above a solid horizontal line.

